

## 요한계시록 3:7-10 번역과 해석

강대훈\*

본 글의 목표는 요한계시록 3:7-10(『개역개정』)의 번역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7-10절을 순서대로 분석하고 『개역개정』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다. 특히 8-10절의 ‘호티(ὅτι)’ 구문에 대한 명료한 표현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ἄγγελος)에게 편지를 쓰도록 요한에게 지시한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앙겔로스(ἄγγελος)’는 일곱 천사 중 하나로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를 대표한다. 천사에게 보내는 내용은 교회에 전달된다(참고. 1:20). 1:20에서도 교회의 대표는 ‘일곱 별들’, 곧 ‘일곱 교회의 천사들’(ἄγγελοι τῶν ἑπτὰ ἐκκλησιῶν)이다. 『개역개정』의 “사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심부름꾼”보다는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sup>1)</sup> 요한이 기록하는 내용은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τάδε λέγει)로 시작한다. 지시대명사 ὅδε(의 복수 목적격 τὰδε)는 ‘이것들’로 번역된다.<sup>2)</sup>

\* University of Bristol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조교수. [kangdaehoon@csu.ac.kr](mailto:kangdaehoon@csu.ac.kr).

- 1) ἄγγελος가 “사자”(메신저)를 의미하고 구약에서 천상의 중개자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사용되는 점에 근거해 ἄγγελος를 교회의 지도자 또는 일꾼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 2-3장의 편지는 교회의 인간 지도자에게 먼저 전달된 것이 아니며, 1-3장(59회) 이후에도 이 용어는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 즉 천사에게 사용된다.
- 2) 요한계시록에 7회 등장하는 τὰδε λέγει(2:1, 8, 12, 18; 3:1, 7, 14)은 칠십인역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οὕτως εἶπε κύριος)와 같은 의미로 요한계시록의 선지자 전승을 반영하는 문구다. 이 표현은 선취적 또는 예견적 의미를 전달한다.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말씀의 주체인 예수를 『개역개정』은 “거룩하고 진실하사”로 번역한다. 이 문구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ὁ ἅγιος, ὁ ἀληθινός)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형용사 ‘알레띠노스(ἀληθινός)’는 ‘참된/진짜의’ 또는 ‘신실한/신뢰할 만한’을 뜻한다.<sup>3)</sup> 요한계시록의 용례를 간단히 살펴보자(3:7, 14; 6:10; 15:3; 16:7; 19:2, 9, 11; 21:5; 22:6). 하늘의 죽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된 분’(ὁ ἅγιος καὶ ἀληθινός)으로 부른다(6:10).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δίκαιαι καὶ ἀληθιναί, 15:3).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ἀληθιναι καὶ δίκαιαι, 16:7; 19:2).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ἀληθιναί, 19:9).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πιστοὶ καὶ ἀληθινοί, 21:5; 22:6). 예수는 ‘신실하고 충실한’(ὁ πιστὸς καὶ ἀληθινός) 증인이다(3:14). 흰말을 탄 자의 이름은 ‘신실과 참’(πιστὸς καὶ ἀληθινός)이다(19:11).<sup>4)</sup>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형용사 ἀληθινός를 ‘참된’으로 번역한다. 첫째,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신실한’ 보다는 ‘참된’이 적절하다. 함께 사용된 ‘거룩한 자’(ὁ ἅγιος)는 그리스도를 신적 존재로 표현하는 용어다. ‘거룩한 자’(ὁ ἅγιος)는 구약(예, 왕하 19:22; 욥 6:10; 시 78:41; 함 3:3), 특히 이사야서에서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됐다(예, 사 40:25; 43:3-4; 45:11-14; 49:6-7; 60:9-14).<sup>5)</sup> 특히 요한계시록 3:7의 ‘거룩한 자’는 이사야 60:14의 용례에 가깝다.<sup>6)</sup> 이사야 60:14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며, 요한계시록 3:9의 내용과 비슷하게, 그의 백성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의 백성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특히 요한계시록 6:10에서 ‘거룩하고 참된 분’(ὁ ἅγιος καὶ ἀληθινός)이 하나님에게 사용된 점도 3:7의 용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이고 신적 능력을 의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참고. 막 1:24; 요 6:69; 행 3:14).<sup>7)</sup> ‘거룩한 자’와 사용되는 ὁ ἀληθινός도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을 내포하므로 ‘참된 분’

1996), 328; D. E. Aune, *Revelation 1-5* (Dallas: Word, 1997), 241-142.

3) *BDAG* 43.

4) 이런 용례를 고려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진리’ 또는 ‘참’이 ‘신실함’ 또는 ‘신뢰할 수 있는’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19:9; 21:5; 22:6). C. R. Koester, *Revelation: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323.

5) O. Procksch, “ἅγιος”, *TDNT* 1, 93-94.

6) C. R. Koester, *Revelation: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23.

7) 신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요 7:28; 살전 1:9; 요일 5:20)과 예수(요 1:19; 15:1; 요일 5:20)의 속성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예수는 ‘참된’ 빛(요 1:9; 요일 2:8), ‘참된’ 포도나무(요 15:1)로 묘사된다.

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sup>8)</sup> 유대인들은 예수를 경배하는 행위를 신성모독으로 정죄했으나 예수는 예배의 대상으로서 거룩하고 참된 분이다(5:13-14; 22:3).<sup>9)</sup> 둘째, 3:7-12의 문맥에서 유대인들의 거짓 주장(3:9)과 달리 그리스도는 ‘참’, ‘진짜’ 메시아다(3:7).<sup>10)</sup>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짓 메시아, 자칭 메시아로 규정하고 그를 거부했으나 예수는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참된 분’이다.<sup>11)</sup>

7절, ὁ ἀνοίγων καὶ οὐδεὶς κλείσει καὶ κλείων καὶ οὐδεὶς에서 κλείσει와 ἀνοίγει는 각각 미래시제와 현재시제이므로 ‘닫지 못할 것이다’와 ‘열지 못한다’로 번역된다.

8절을 시작하는 οἶδά σου τὰ ἔργα(‘네 행위들을 안다’)는 8-10절의 머리말 역할을 하고(참고. 2:2, 19; 3:1) 다음 문장부터는 ‘행위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sup>12)</sup> 8-1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상과 약속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8b, 9, 10b)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에는 약속의 이유(8c, 10a)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ὅτι로 소개된다.

나는 네 행위들을 안다(8a절) οἶδα σου τὰ ἔργα

A (약속 1) 나는 열린 문을 두었다(8b절)

ἰδοὺ δέδωκα ἐνώπιόν σου θύραν ἠνεωγμένην

A' (이유 1) ὅτι …: 네가 … 했기 때문에(8c절)

ὅτι μικρὰν ἔχεις δύναμιν καὶ ἐτήρησάς μου τὸν λόγον …

B (약속 2) 나는 … 유대인들의 일부가 … 앞드리게 하고 …

알게 할 것이다(9절).

C' (이유 2) ὅτι …: 네가 … 을 지켰기 때문에(10a절)

ὅτι ἐτήρησας τὸν λόγον τῆς ὑπομονῆς μου

C (약속 3)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10b절)

κάγώ σε τηρήσω …

8)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9), 293; B. M. Fanning, *Revelation*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20), 172; P. Prigent,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of St. John*, W. Pradels, trans., (Tübingen: Mohr Siebeck, 2001), 201.

9) C. R. Koester, *Revelation: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28.

10) J. A. D. Weima, *The Sermons to 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 A Commentary and Guid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1), 196; R.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7), 99.

11)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283.

12) G. Mai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Kapitel 1-11* (Witten; Giessen: SCM R.Brockhaus; Brunnen Verlag), 220.

『개역개정』은 그리스어 문장의 머리말(‘나는 네 행위들을 안다’) 앞에 첫 번째 약속,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를 배열하고 머리말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와 곧바로 연결한다. ‘호티(ὅτι)’ 구문과 8-10절의 구조를 고려하면 8c절,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네 행위들’(8a절)의 첫 번째 예다. ‘네 행위들’에 뒤따르는 8b절, ἰδοὺ δέδωκα ἐνώπιόν σου θύραν ἠνεωγμένην(‘나는 …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다’)는 삽입절이 아니라 선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고 접속사 ὅτι로 시작되는 다음 문장(행위의 첫 번째 예 또는 약속의 첫 번째 이유)과 연결된다. 8c절, μικρὰν ἔχεις δύναμιν καὶ ἐτήρησάς μου τὸν λόγον(‘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에서 καὶ는 역접 접속사의 용례일 수도 있으나<sup>13)</sup> 여기서는 강조의 용례에 해당한다. 이 용례는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된다.<sup>14)</sup> 이런 점에서 『개역개정』의 번역은 적절하다. 교회는 작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의 말씀(또는 계명이나 명령)을 지켰고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열린 문을 두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는다.<sup>15)</sup> 저자는 ‘지키다’(τηρέω)와 ‘부인하다’(ἁρνέομαι)의 과거형, ‘지켰다’(ἐτήρησας), ‘부인하지 않았다’(οὐκ ἠρνήσω)를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이미 입증한 행위를 전제로 한다.<sup>16)</sup>

9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한 두 번째 약속이다. συναγωγῆς ‘회’ 또는 ‘회당’으로 번역될 수 있다. ‘사단의 회로부터’(ἐκ τῆς συναγωγῆς τοῦ σατανᾶ)의 소유격은 회(당)의 소속을 의미한다.<sup>17)</sup> 즉 전체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회(당)의 얼마’로 번역될 수 있다.<sup>18)</sup> διδῶ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회당에 속한 자들’(9a절)은 “그들”(αὐτοὺς, 9b절)과 같은 대상이다. 흔히 ‘주다’로 번역되는 διδῶ(9a절)는 이 문장에서 ‘하게 하다’를 뜻하고 다음 문장에 나오는 ποιήσω(‘하게 할 것이다’)와 비슷한 의미이며, 현재시제이지만 미래의 의미를 전달한다. διδῶ의 목적어에 부정사나 ἵνα-절이 연결되지

13) D. L. Mattewson, *Revelation: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6), 45.

14) *BDAG*, 495(Ⓟ-η).

15) S.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London: SPCK, 2005), 90.

16) S.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90; B. M. Fanning, *Revelation*, 174: 여기서 부정과거 동사는 특정 행위가 아니라 과거에 교회가 보여준 여러 행위를 암시하고 어려움에도 교회가 결국 입증한 행위를 의미한다.

17) D. E. Aune, *Revelation 1-5*, 230.

18) *BDF* §164; *BDAG*, 297

않기 때문에 9a절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고 행위(‘주다’ 또는 ‘~하게 하다’)의 결과가 없다. 반면 9b절에는 ἵνα-절(ἵνα ἴξουσιν καὶ προσκυνήσουσιν)이 목적어 αὐτοῖς에 붙어 행위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와서 엎드려도 록’(ἴξουσιν καὶ προσκυνήσουσιν)과 ‘알도록’(γινώσιν)을 연결하는 καὶ는 선행절에 묘사된 행위의 결과를 시작하는 역할을 한다.<sup>19)</sup> 유대인들의 일부(‘회당에 속한 얼마’)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장면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인정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1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한 세 번째 약속(10b절)과 약속의 이유(10a절)이다. 10절의 맨 앞에 등장하는 ‘호티(ὅτι)’ 문장은 미래에 받게 될 보상을 약속하는 근거와 이유를 의미한다. ‘약속’(10b절)은 “네 행위”(8a절)에 대한 보상이고 ‘이유’(10a절)는 “네 행위”의 예다. 그리스도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의 말씀을 지켰기(10a절) 때문에 시련의 때로부터 지킬 것이라고 약속한다(10b절). 여기서도 저자는 ‘말씀을 지켰다’(τὸν λόγον ἐτήρησας)를 과거시제로 표현한다. 10a절의 지킴은 명령이나 계명에 대한 순종과 관련이 있고 10b절의 지킴은 보호와 관련이 있다.<sup>20)</sup> 그리스도는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신다. 이 문구의 순서는 “말씀을”-“인내의”-“나의”(τὸν λόγον τῆς ὑπομονῆς μου)인데 두 가지 번역과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나의”가 “인내”를 수식하게 되면 이 문구는 ‘예수가 보여준 인내에 대한 말씀’을 의미한다.<sup>21)</sup> 둘째, “나의”가 바로 앞의 “인내”가 아니라 더 앞쪽의 “말씀”을 수식한다.<sup>22)</sup> 즉 소유격 “인내의”를 “말씀”의 목적어로, “나의”를 “말씀”의 주격으로(“내가 말하는 말씀/명령”) 이해한다.<sup>23)</sup> 본문의 흐름에서는 두 번째가 적절한 번역과 해석이다. 특히 이 표현은 8절의 ‘나의 말씀을 지켰다’(ἐτήρησας μου τὸν λόγον)와 병행 관계다. 8절에서 교회는 ‘나의 말씀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로 평가받았다. 그렇다면 “인내”는 예수의 인내가 아니라 교회의 인내다.<sup>24)</sup> 그리스도는 시련의 때에도 인내로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명령에 순종했다.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시련의 때에 교회를 지

19) D. E. Aune, *Revelation 1-5*, 231.

20) S.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92.

21) P. Prigent,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of St. John*, 205.

22)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87-88.

23) D. E. Aune, *Revelation 1-5*, 231; B. M. Fanning, *Revelation*, 175.

24) B. M. Fanning, *Revelation*, 175.

킬 것을 약속한다. 시험의 때는 ἐπὶ τῆς οἰκουμένης ὅλος(“온 세상에”) 임하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οἰκουμένη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세상을(12:9; 16:14),<sup>25)</sup> “온 세상”(οἰκουμένη ὅλη)은 인간이 거주하는 세상 전체를 가리킨다(참고. 행 11:28).<sup>26)</sup>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문구다(6:10; 8:13; 11:10; 13:8, 14; 17:8). κατοικέω는 어떤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sup>27)</sup> ‘거주하다’(『개역개정』: ‘거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sup>28)</sup>

‘닥쳐올 시험의 때에서’(ἐκ τῆς ὥρας τοῦ πειρασμοῦ τῆς μελλούσης ἔρχεσθαι)의 μελλούσης는 μέλλω의 현재 분사다. ‘~할 것이다’로 번역될 수 있는 μέλλω는 앞으로 일어날 운명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므로<sup>29)</sup> 필자는 τῆς μελλούσης ἔρχεσθαι를 『개역개정』의 “장차”를 추가하는 대신 ‘닥쳐올’처럼 미래 시제의 단어만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참고. 계 1:19; 12:5; 17:8; 마 17:12, 22; 행 26:22).<sup>30)</sup> πειρασμός는 ‘시험’(또는 ‘유혹’)과 ‘시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련’은 신앙을 점검하고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땅의 거주자들’에게 닥치는 것은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다.<sup>31)</sup> 물론 문맥에서 땅의 거주자들에 대한 시험이 신자들에게는 ‘시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ἐκ τῆς ὥρας τοῦ πειρασμοῦ는 ‘시련의 때에서’로 번역될 수 있다.<sup>32)</sup>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선택하신 백성을 계속 보호하실 것이다. 본문은 ‘지키다’(τηρέω)의 동사를 중심으로 평행법을 사용해 신자들은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는 그런 신자들을 지키는 점을 강조한다.<sup>33)</sup>

25) 로마제국에 국한되는 경우는 눅 2:1.

26)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291. 본문에서 οἰκουμένη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Ian Paul, *Revelation: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ondon: Inter-Varsity Press, 2018], 108).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예, H. Balz, *EDNT* 2, 504) 또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동의어로 이해하는 입장으로는 이해한다(D. E. Aune, *Revelation 1-5*, 239).

27) *BDAG*, 534; J. P. Louw and E. A. Nid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730.

28) 『개역개정』은 14:6에서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 번역한다.

29) *BDAG*, 628.

30) B. M. Fanning, *Revelation*, 176.

31) D. E. Aune, *Revelation 1-5*, 239.

32) S.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92; B. M. Fanning, *Revelation*, 176.

33) 같은 동사이지만 앞의 동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뒤의 동사는 안전하게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으로 시련을 비껴나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시험”이 온 세상에 이를 때 신자들은 ‘시련’을 받게 될지라도 영적으로는 보호받

위의 분석에 따른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계 3:7) 필라델피아에 있는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열면 누구도 닫지 못할 것이고 그분이 닫으면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계 3:8) 나는 네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라 나는 누구도 열지 못하는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다. 네가 작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 3:9) 보라 나는 사탄의 회, 즉 유대인들로 부르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얼마가 네게 와서 네 발아래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음을 알게 할 것이다.

(계 3:10) 내가 인내에 대한 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닥쳐올 시련의 때에서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5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3일)